정성주 김제시장, 한국새농민회 명예회원 위촉

김제시 정성주 시장이 지난 17일 농업인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자 운영중인 (사)한국새농민회로부터 명예회원으로 위촉됐다.

김제시(시장 정성주)에 따르면 (사)한국새농민회는 자립·과학·협동하는 새농민 운동의 확산 보급을 통해 농업인의 농업경영과 기술개선에 선도적 역할을 하며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운영 중인 전국적인 조직이다.

새농민회 전북특별자치도 한강희 회장은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의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새농민회 회원들의 농업 혁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농업경영개선 및 재배기술개선을 통한 소득향상을 추구하여 농업인의 지위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우리의 농업은 급변하는 기후와 시장 환경 속에서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으나 김제시는 언제나 농업인과 함께 호흡하고 농업 농촌이 미래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새농민회와 변화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하모니봉사단, 양성평등정책지원사업 추진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하모니봉사단(회장 권보정)이 지난 16일 자원봉사종합센터 2층 교육실에서 '찾아가는 성평등 열린 교실' 운영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김제시 양성평등정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일상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대응법과 응급처치를 위한 심폐소생술 실습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이를 통해 회원들이 성평등 인식과 생활안전 역량을 동시에 갖추도록 진행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원들의 교육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 노인·장애인 등 지역 내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배운 내용을 전달하는 '찾아가는 성평등 열린교실'로 확장될 예정이다. 그간 하모니봉사단은 정기적인 여성가족친화거리 환경을 정비하고 있으며, 거리를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 대상 생활안전 교육, △성차별 고정관념 개선 캠페인, △분리수거 등 친환경 실천 홍보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성평등과 안전문화를 전개할 예정이다.

권보정 회장은 "양성평등정책지원사업을 통해 회원들이 배운 것을 시민들과 나누어, 특히 노인과 장애인 등 일상 안전에 취약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최미화 김제시 교육가족과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교육을 넘어 시민이 체감하는 성평등 가치 실현과 안전문화 확산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제 =곽노태 기자

도, 치매어르신 배회감지기 1000대 보급

전북은행, 배회감지기 1000대 기탁… 누적 2000여대 보급

손목 위 작은 기기가 치매 어르신과 가족의 큰 안심이 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도청에서 전북은행이 배회감지기 1,000대 보급을 위해 총 3억5천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백종일 전북은행장, 오현권 부행장,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김한규 사무처장이 참석해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

전북은행은 2023년 400대(1억1,800만원), 2024년 625대(2억원)를 기탁한 데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배회감지기 보급을 후원하며 도내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누적 기탁량은 2,000여 대 이상으로, 대한적십자사가 직접 구매·배포 및 사후관리를 맡아 실종 위험이 있는 도내 치매 어르신과 인지저하자들에게 순차 지원될 예정이며, 올해는 스마트태그를 추가 도입해 요양시설 및 발달장애인 시설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손목시계형 배회감지기는 GPS 기능이 탑재돼 보호자 스마트폰과 연동되며, 실시간 위치 정보를 제공해 가족들의 불안감을 덜어준다.

아울러, 도는 실종노인 예방과 조기 귀가를 돕기 위해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사업(1만3,019건) △지문·사진·보호자 연락처를 경찰청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는 제도(2,020건)도 병행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치매어르신을 위해 배회감지기 지원 사업비를 기부한 전북은행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광역치매센터 등과 협력해 치매어르신 실종예방과 실종 찾기 홍보를 온·오프라인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오상근 기자

이숙자 남원시의원 현장 의정 '주목'

남원시의회 이숙자 의원이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발로 뛰는 현장 의정을 이어가며 시민들로부터 환영받고 있다.

최근 이숙자 의원은 시청 맞은편 노후 버스승강장과 관련된 주민 민원을 접수하고 즉각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 해당 승강장은 사용하지 않는 지주 안내판이 여전히 설치돼 있어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었으며, 가림막이나 의자가 부족해 여름철 폭염이나 비바람에 취약한 구조였다. 특히 환승 편의성이 떨어져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신규 노선 투입 필요성까지 제기된 상태였다.

이 의원은 곧바로 시 관계 부서와 협의를 진행해 지주 안내판을 철거하고, 의자 및 가림막 설치, 주변 환경 정비 등이 이루어졌으며, 이번 조치는 단순히 시설 개선만이 아니라 여러 부서가 협력해 민원을 해결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숙자 의원은 "시민의 작은 목소리였지만 시청 앞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 만큼 중요성이 컸다며, 즉각적인 대응과 협조로 조치를 시행해 준 교통과, 민원과, 환경과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으며,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는 경청하는 시의원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 =김기두 기자

무주농협 - 한국철도공사 영동역 '기업-농촌이음 운동' 교류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과 한국철도공사 영동역(역장 이재철)은 지난 7월 22일 「기업-농촌이음 운동」 업무협약에 따라 교류활동을 전개했다.

양 기관은 9월 18일 영동역 광장에서 영동국악엑스포를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무주 우수농산물 반딧불사과 홍보 및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쌀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우리쌀 뻥튀기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무주농협 곽동열조합장, 영동역 이재철역장, 농협중앙회 무주군지부 김범석 지부장, 영동농협 안진우조합장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단순한 농산물 판매를 넘어, 건강한 먹거리와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도시민과 농촌을 잇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무주농협과 영동역은 앞으로도 무주군 관내 마을을 대상으로 한 효도문화공연, 수확철 농촌일손돕기, 영농폐기물 수거사업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영동국악엑스포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된 이재철 영동역장은 "영동국악엑스포를 찾은 많은 방문객에게 무주 우수 농산물을 알릴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무주 =전문선 기자

와이즈멘 전주풍남클럽, 전북대병원에 발전후원금

전북대학교병원이 따뜻한 후원의 손길을 받았다.

국제 우호 봉사단체인 국제와이즈멘 전주풍남클럽이 희귀질환 소아환자의 진료를 돕기 위해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부한 것이다.

18일 병원 본관 3층 온고을홀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양종철 병원장을 비롯해 이상록 대외협력홍보실장 등이 참석했고, 전주풍남클럽에서는 조천희 회장과 신인관 차기회장 등 회원 13명이 함께해 훈훈한 분위기를 더했다.

2004년 창립된 전주풍남클럽은 "마음으로 봉사하는 전주풍남클럽"이라는 슬로건 아래, 취약계층 중식 지원, 장학금 지원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2019년에는 전북대병원에 휠체어 25대를 기부하며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이어온 바 있다. 이번 후원은 그 두 번째 결실이다.

조천희 전주풍남클럽 회장은 "희귀질환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회원들이 정성을 모았다"고 말했다.

양종철 전북대병원장은 "이번 후원은 희귀질환 소아환자들의 치료 환경을 개선하고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시 진북동, 독거노인 가구 밑반찬 나눔 봉사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종희)는 지난 17일 관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1인가구 및 독거노인 100세대에 밑반찬 나눔 봉사를 추진했다.

이번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손수 갖가지 밑반찬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독거 어르신의 안부 확인과 생활실태 등을 파악하여 정서적 지지체계를 마련하고 고독사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박종희 위원장은 "한 끼라도 건강한 식사를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정성껏 밑반찬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조배수 진북동장은 "이번 행사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밑반찬을 준비해 주시고 나눔 실천에 늘 앞장서시는 협의체 위원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권희성 기자

남원 주천면 지사협, 취약계층에 '사랑의 꾸러미'

남원시 주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독거노인, 노인부부,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 30가구에 사랑의 꾸러미를 전달하였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사업 지원금을 활용, 관내 소외계층이 행복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 직접 방문해 과일, 약과, 식료품 등으로 구성된 명절 꾸러미를 전달하는 사업이다.

한 독거어르신은 "명절에 찾아오는 가족들도 없이 쓸쓸했는데, 직접 찾아와 이야기도 나누고 명절 꾸러미도 전달해 주시니 반갑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남원 =김기두 기자

남원시보건소, 감염병 예방 주간행사 가져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지난 16일과 17일, 남원의료원 본관 1층에서 감염병 예방 주간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감염예방 문화 확산과 감염관리 인식 및 실천 강화, 지역사회 연계 등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내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해 마련, 남원의료원 환자, 보호자, 직원 등 355명을 대상으로 가을철 집중해서 발생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예방수칙과 2주 이상 기침 시 결핵 검진 안내 등을 홍보했다.

또한 남원의료원 감염관리계와 간담회를 통해 △감염병 관리 국가예산 확보 방안 △법정감염병 환자 신고기한 준수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동향 및 의료인 2차 감염 안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민간·공공협력(PPM) 결핵관리사업 △코로나19 발생 동향 및 예방접종 안내 등을 논의했다.

보건소 정희연 감염병관리팀장은 "앞으로도 협업 소통을 통해 감염병 관리 기반을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보건소·아산병원, 세계 환자 안전의 날 캠페인

정읍시보건소가 정읍아산병원과 함께 세계 환자 안전의 날을 기념해 감염병 예방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17일 병원 1층 로비에서 열린 '환자 안전 및 감염 관리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시민들에게 감염병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건강 습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

보건소는 행사장 내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가을철에 발생하기 쉬운 진드기 매개 감염병과 결핵 예방 수칙을 집중적으로 알렸다.

긴 옷 착용, 기피제 사용 등 감염병 예방 행동과 함께 결핵 예방을 위한 기침 예절, 2주 이상 기침 시 검진 권고 등 필수 정보를 전달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물과 기념품도 배부했다. /정읍 =김대환 기자

남원 도통동 지사협, 착한가게 현판 전달

남원시 도통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용식이삼겹'(대표 차미정)을 착한가게 제51호점으로 지정하고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

용식이삼겹은 평소에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 왔으며. 이번 착한가게 지정은 그간의 꾸준한 나눔 실천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기업의 진심이 담겨 있다.

차미정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어 기쁘고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가게가 되고 싶다"고 전했다.

도통동은 현재 '1일 1가구 소통행정'을 중심으로 주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해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 중이다. /남원 =김기두 기자

농협 순창군지부, 사랑의 반찬 · 쌀 나눔 행사 개최

농협 순창군지부(지부장 신종철)는 18일 순창농협 고향주부모임(회장 김숙희)과 함께 지역 내 어려운 가정을 위한 '사랑의 반찬·쌀 나눔행사' 봉사활동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고향주부모임 회원들과 신종철 지부장, 순창농협 김성철 조합장 등은 순창군지부 텃밭정원에서 수확한 가지, 고구마 순 등을 포함한 제철 식재료로 알배추김치, 오뎅볶음, 김자반, 고구마 순 김치, 가지무침 등 밑반찬을 만들었다. 이들은 정성껏 마련한 반찬 꾸러미와 순창 동계 햅쌀을 장애인 가정 등 소외계층 30여 가구에 전달했다.

신종철 지부장은 "군지부는 주차장에 만든 텃밭정원과 연계하여 고객,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생태체험, 반찬 나눔행사 실시 등 농업의 가치를 알리는 '농심천심 운동'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창 =이양원 기자